

2. 주요 내용

① 보험회사의 ORSA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 공표('19.2분기)

- ORSA체계를 마련한 보험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,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,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
- 보험회사가 ORSA 운영수준을 개선하고, 향후 도입에 참고하도록 평가결과와 우수사례를 외부에 공표
- 금년중에 평가지침을 마련하고, '19년부터 전년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시행

< 공표 내용(예시) >

구 분	내 용
시행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제도를 운영중인 회사명 ▪ 우수사례 선정회사와 주요 평가내용 ▪ ORSA 운영수준 평가결과가 '양호'한 회사명 ▪ 각 평가수준별(양호, 보통, 미흡) 회사 분포
유예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회사별 제도 시행예정시기 ▪ 제도 도입준비상황이 '양호'한 회사명

②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기준에 ORSA 운영실적 반영('19년)

- 자체 지급여력 산출 및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 여부를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

③ 보험회사별 운영실태 평가결과 피드백('19년~)

- 매년 ORSA를 최초로 시행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평가(문제점 지적 보다는 컨설팅)하고, 그 결과 및 개선필요 사안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, 해당 보험회사에 개별 제공

3. 기대 효과

☐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에 기여

-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회사가 ORSA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

☐ 지급여력제도의 내부모형 도입에 기여

- '내부모형 승인기준'에 ORSA 운영경험 등 질적 평가항목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는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

☐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

- 향후 IMF의 FSAP 평가시,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제체계를 지속 개선*하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* 지난 2013년 IMF는 우리나라 보험부문에 대한 FSAP평가에서 ORSA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

- **[정의]** 보험회사가 스스로 회사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측정모형을 구축하고,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경영계획까지 반영한 리스크를 산출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,
 - 현재의 리스크통제수준이 장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를 의미
- **[운영]** 보험회사는 연 1회 이상 ORSA체제에 의해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,
 -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성향, 경영환경 및 자체 지급여력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경영계획을 승인하는 등 리스크중심 경영의 최종의사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
- **[평가내용]** ① 이사회 등의 리스크통제구조, ② 중요 리스크의 인식과 평가, ③ 가용자본 및 리스크량을 이용한 자체 지급여력 평가, ④ 평가결과의 활용 등으로 구성
 - (리스크 통제구조) 전사적 관점에서 이사회·최고경영진 등의 리스크 통제구조가 적정한지 여부
 - (중요 리스크) 계량화할 수 있는 리스크(보험·금리 등) 외에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리스크(법률·평판 등)를 포괄하여 중요 리스크를 적정하기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
 - (회사별 특성 고려) 회사의 위험선호, 보험 및 투자 포트폴리오 등 회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필요자본량을 산출하고 있는지 여부
 - (미래 지급여력 평가) 미래의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리스크와 지급 여력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
- **[도입효과]** 표준화된 방식의 양적 자본규제인 RBC제도로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다양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·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, 리스크통제를 강화하여 리스크중심의 경영으로 전환 유도

참고2

보험회사 ORSA 제도 운영현황

- 53개* 보험회사 중 11개사가 '17년에 도입한 반면, 42개사는 '18년 이후로 도입을 유예하여 현재 제도 도입비율은 약 20% 수준

* '18.6월말 현재 전체 55개 보험회사 중 철수 예정인 2개사 제외

< ORSA제도 시행(예정) 시기별 현황 >

('18.6월말 현재)

구 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미확정	계
생보사	4개사	-	5개사	1개사	12개사	2개사	24개사
손보사	7개사	3개사	3개사	1개사	2개사	13개사	29개사
도입비율 (누적)	20.8%	26.4%	41.5%	45.3%	71.7%	100.0%	

1 도입시기 유예회사(42개)

- 14개사는 '21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였고, 15개사는 '21년에 시행여부를 재검토하거나 매년 유예시기를 검토할 계획으로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
- 또한, 13개사는 향후 ORSA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계획*을 확정하지 못해 시행일정을 연기되거나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하더라도 제도 운영이 충실하지 못할 우려

* 리스크평가방법 검토, 리스크 내부통제구조 정비, 자체 리스크측정모형 구축 등

2 도입 시행회사(11개)

- 회사간 ORSA 운영수준의 차이가 큰 상황으로, 5개사는 아직 ORSA 체제의 핵심사항* 운영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

* 장래 경영계획을 반영한 재무건전성 영향 분석, 비계량위험을 포함한 중요리스크 평가, 자체 모형을 활용한 리스크평가, ORSA 평가결과의 경영의사결정 활용

1 해외 주요국의 ORSA제도 운영현황

- (EU) '09년 유럽의회가 승인한 「Solvency II 지침」에 리스크관리체제의 일환으로 ORSA제도를 반영하여 '16.1월부터 시행
- (미국) '12년 NAIC는 리스크중심 감독체제의 강화를 위해 「리스크 관리 및 ORSA에 관한 모델법」을 제정하여 '15.1월부터 시행
- (호주) ORSA 체계의 ICAAP* 제도를 '13.1월부터 시행

*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(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)

2 국내 은행권 운영현황

- '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제도'를 '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 은행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점검기준을 마련(시행세칙)
 -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운영원칙*을 정하고, 이를 은행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
- * ①이사회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, ②내부자본적정성 관리, ③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, ④모니터링 및 보고, ⑤통제구조 등에 대한 평가원칙
- 또한, 은행의 자체평가 적정성을 감독당국이 점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감독조치(추가자본 적립요구)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